

# 大學圖書館의 碩·博士學位論文 管理體制

孫 文 哲\*

## 目 次

緒 言	2. 大學圖書館의 學位論文 管理實態
I. 學位論文의 資料的 特性	III. 碩·博士學位論文의 管理體裁와 그 基準
1. 學位論文의 特性	1. 收書相과 그 基準의 問題
2. 國內 碩·博士學位論文의 資料 의 性格	2. 整理相과 그 基準의 問題
II. 韓國大學圖書館에서의 學位論文의 管理實態	3. 閱覽相과 그 基準의 問題
1. 國內 大學院에서의 學位授與 現 況	結 言
	參考文獻
	英文抄錄

## 緒 言

現代社會에 있어서 각 分野의 급격한 發展은 學問分野의 高度化 및 細分化 樣相을 가져오고 아울러 知識과 情報의 淸快한 蓄積과 이에 따른 資料의 爆發的 增加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大學院의 增加<sup>1)</sup>로 인하여, 그 研究結果로서 이루어지는 碩·博士 學位論文의 數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增

\* 大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副教授

1) 우리나라에 있어서 1970년에 大學院 學生 總數는 6,640名이던 것이 1980년에는 33,939名, 1985년에는 68,178名으로 15年間 約 10.3倍의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70年代 末期부터 급격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문교부통계연보, 1965-1985 參照)

加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學位論文은 각分野의 최신의研究動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大學圖書館에 있어서 중요한情報資料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大學圖書館에서는入手된未公刊學位論文을 수시로合理的으로整理하지 못하고, 그作業이 지연됨으로써,利用者에게資料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利用者들은學位論文資料가 매우近接하기 어려운 것으로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利用者の要求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處理하기 위해서는學位論文의管理에 있어서 일대轉換을 필요로 하고 있다.

本研究에서는學位論文의圖書館資料로서의性格을 살펴보고, 이를 보다合理的으로入手하고整理하여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方法을模索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本考에서는收書關係 9問題, 整理關係 8問項, 閱覽關係 6問項으로 이루어진質問紙를作成하여 1986年 9월부터同年 11월에設問調査를 실시하여 12월에는資料處理하여 그結果를分析하였다. 또한調査過程에서는小規模의圖書館은學位論文으로 인한問題點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國內의 30個綜合大學만을對象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그內譯은〈表 1〉과 같다.

〈表 1〉 全國綜合大學分布 및 調査對象表

地域	全體大學數	選定大學數	比率(%)	選定大學內譯(가나다順)
서울	21	14	66.7	건국(대학교)·경희·고려·국민·동국·서울·성균관·숙명여자·연세·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
지방	24	16	66.7	강원·경남·경북·경상·계명·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제주·조선·충남·충북·효성여자.
計	45	30	66.7	30

한편, 選定된 調查對象校에 따른 質問紙를 우송하여 回收하여 백분율로 처리한 것을 보면 <表 2>와 같으며, 主題는 未刊行 碩·博士學位論文의 管理에 대한 諸問題로 국한시켰다.

<表 2> 質問紙 回收率

地 域	調查對象者	應 答 者	回 收 率 (%)	比 較
서 울	14	12	85.7	
지 방	16	13	81.3	
計	30	25	83.5	

本 研究의 先行研究로서 外國의 중요한 研究動向을 살펴보면, 1969年 Ash의學位論文의 交換에 관한 研究,<sup>2)</sup> 1977年 Patterson 등의學位論文의 製本, 目錄, 分類, 保管 등에 관한 實態調查研究,<sup>3)</sup> 1978年 寺村由比子の學位論文의 二次資料의 性格에 관한 研究,<sup>4)</sup> 1985年 Harris와 Huffman의美國大學圖書館의學位論文에 대한 分類, 主題名標目 등의 編目 實態調查研究<sup>5)</sup> 등이 있다.

한편 國內에서는學位論文에 관한 研究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2年 朴熙永의學位論文의 目錄法에 관한 研究,<sup>6)</sup> 1981年

- 2) John Ash, "The exchange of academic disser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0, No.3(May 1969), pp.237-241.
- 3) Kelly Patterson, et al., "Theses: handling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1, No.3(Summer 1977), pp.274-285.  
 主題要求에는 완벽한 主題分析에 따른 目錄은 시행하고, 必要部分만 보려는 利用者를 위해서는學位論文을 書架에 大學, 學科別 順으로 整理하는 법을 發想하였다.
- 4) 寺村由比子, "學位論文의 二次資料," ドクメンテーションケンゲキユウ, Vol.28, No.12(1978.12), pp.599-608. 情報의 신속한 傳達의 必要때문에學位論文의 유통, 루트가 確立되고 檢索道具가 整備되는 것이 절실하게 要求된다.
- 5) George Harris, Robert Huffman, "Cataloging of theses: a Surve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5, No.4(Summer 1985), pp.1-15.學位論文에 대한 接近點으로 가장 必要한 것은 目錄規則 고안이다.
- 6) 朴熙永, "學位論文目錄法小考," 도서관, Vol.27, No.11(1972.11), pp.14-15.  
 學位를 請求하기 위하여 극히 少部數를 作成하여學位를 請求하는데 必要한 部署에 다 提出하는 것으로 본다면 出版者名을 記述할 必要가 없다.

金萬碩<sup>7)</sup>과 1984年 趙浩一<sup>8)</sup>의 大學圖書館의 學位論文 管理實態 研究, 1985年 趙浩一의 論文의 目錄記述形式 및 檢索方法에 관한 研究,<sup>9)</sup> 1984年 尹炳泰의 學位論文의 特性, 收書, 整理, 保存 등에 관한 研究,<sup>10)</sup> 尹相基의 學位論文의 書誌活動에 관한 研究,<sup>11)</sup> 1985年 崔達鉉, 邊宇烈의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관한 研究<sup>12)</sup>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先行研究는 學位論文의 總體的 考察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本 研究에서는 現場에서 問題의 초점이 되는 合理的인 管理問題를 先行研究者의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實態調查結果를 分析하여 효과적인 管理體裁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 學位論文의 資料의 特性

### 1. 學位論文의 特性

學位論文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學位를 얻기 위하여 提出하는 學術論文”으로서, 學位論文의 特性을 一般圖書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 7) 金萬碩, “碩·博士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관한 調查研究,” 圖書館研究, Vol. 22, No. 5 (1981.9-10), pp. 11-16. 大學圖書館의 收書政策에서 學位論文의 藏書化는 再考되어야 한다.
- 8) 趙浩一, “學位論文資料의 整理를 위한 調查研究,” 啓明研究論叢, 第2輯(1984), pp. 45-67. “學位論文은 獨立된 類型의 圖書館 資料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 9) 趙浩一, “學位論文의 目錄記述形式 및 檢索方法考察,” 圖書館學論集 第12輯(1985), pp. 133-160. 目錄記入 事項들중 별로 의미가 없는 對照事項과 出版地 表示를 제거하고, 目錄作成에 있어서는 事務用架架目錄과 主題 또는 分類目錄중 한가지만 더하여 이 2種단을 作成하여 整理業務의 간소화 운용방법의 改善이 必要.
- 10) 尹炳泰, “大學圖書館 情報源으로서의 學位論文,”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輯(1984), pp. 1-20. 一次 情報源으로서의 學位論文의 効率性 개괄.
- 11) 尹相基, “韓國에 있어서 學位論文의 書誌活動,”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大邱: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1984), pp. 211-249. 學位論文利用의 活性化를 위하여 書誌活動上의 問題點을 지적.
- 12) 崔達鉉, 邊宇烈,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 圖書館論集, 第12輯(1985), pp. 161-198.

① 學位論文은學位 請求를 위하여 提出하는 未公刊의 學術 報告書이다. 따라서 發賣 또는 配布를 目的으로 한 出版이 아니므로 公刊의 資料와는 엄격히 區別되어야 한다.<sup>13)</sup> 그렇지만 教育法施行令에 “ 論文을 提出하여 博士學位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에 그 論文을 公表하여야 한다.”<sup>14)</sup>라고 規定하고 있어 전혀 公刊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碩士學位論文은 公刊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主題의 特殊性, 論文의 面數, 市場性 등의 原因으로 公刊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實情이다.

② 學位論文은 主題가 專門의이므로 보다 세밀한 分類를 要求하고 있으며, 특히 專門用語의 사용이 많아 一般單行本에 비해 主題語의 接近이나 分類番號의 配定에 보다 많은 努力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資料整理上 迅速性과 圓滑한 利用을 기하기에는 여러가지 難點이 있다.

③ 學位論文은 面數가 均一하지 못하다. 특히 自然科學系列이나 技術科學系列의 學位論文을 보면 面數가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一般單行本과 同一하게 處理해야 할 것인지의 問題가 생기게 된다.

④ 學位論文은 製本狀態가 불완전하다. 특히 碩士學位論文은 製本이 빈약하다. 一部 大學院에서 學位論文의 製本을 洋裝으로 하여 堅固한 表紙를 입히기도 하나, 대부분은 약한 糊付裝으로 되어 있어 資料의 閱覽 및 管理面에 難點이 있다.

⑤ 發行事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學位論文은 編目記述形式, 作成카드의 種類 등에서 簡略化가 가능하다.<sup>15)</sup> 學位論文의 경우 대부분의 圖書館들이 正確한 利用度 調査나 利用者들의 接近 및 檢索形態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보다 經濟的이며 效果的인 整理 및 利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⑥ 學位論文은 發行部數가 限定되어 있으며, 年2회에 걸쳐 거의 同時에 發行되고 있다. 學位論文의 發行部數가 個別的으로는 小量이지만 한꺼번에 發行되어 일시에 會員 大學圖書館 相互間에 寄贈資料로서 配布되고 있다.

13) 趙浩一, *op. cit.*, p. 48.

14) 教育法 施行令, 第136條 參照.

15) 趙浩一, *op. cit.*, p. 50.

## 2. 國內 碩·博士學位論文의 資料的 性格

여기에서 말하는 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的 性格이란 「論文」 자체의 概念에 관한 究明이 아니라, 圖書館의 立場에서 學位論文이 가지는 文獻資料로서의 類型을 意味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圖書館은 같은 印刷媒體에 의한 資料중에서도 「定期刊行物」 또는 「팜플렛」 등을 「圖書」와는 구별하여 登錄하고 整理하며 별도의 規定에 따라 利用者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學位論文도 이제는 그 性格上 獨立된 한 類型의 資料로서 一般圖書과 구별되는 合理的인 整理方法과 管理規定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

1970年 이전까지만 해도 國內 대부분의 圖書館이 소위 大學設置基準令<sup>16)</sup>에 따른 基本藏書量의 確保에 급급하여 入手되는 각종 文獻을 아무런 批判없이 登錄하여 藏書化함으로써 數的增加에 큰 몫을 차지해 왔던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受贈圖書라 하여 무조건 登錄하고 藏書化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學位論文을 반드시 藏書化하여야만 利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sup>17)</sup>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學位論文의 性格을 檢討해 보면,

첫째, 學位論文을 提出하기 위해서는 大學院의 所定課程을 履修해야 하고 試驗에 合格해야 하는 등 學位論文은 大學院 課程의 畢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學位論文은 主題知識에 대한 寄與뿐만 아니라 廣範圍한 參考文獻 및 脚註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專門分野에 대한 非公式 書誌로 利用될 수가 있다.<sup>18)</sup> 이는 未刊本 資料로서의 性格을 지닌 탓으로 一般書誌에는 거의 收錄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提出되어 審査過程을 거친 學位論文은 그 生産部數가 매우 限定되어서 配布上的 限界性이 있으므로 入收하는데 問題點이 없지 않다.

16) 文教法典, 1983年版(서울:敎學社, 1983), p.1127. 「대학설치기준령제12조2항」.

17) 金萬碩, “석·박사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에 관한 소고,” 圖書館論叢, 第2輯(서울:弘益大學校 中央圖書館, 1983), p.103.

18) William A. Katz,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Vol.2. Reference Services and Reference Processes, 2nd ed. (New York : McGraw-Hill, 1974), p.160.

## II. 韓國 大學圖書館에서의 學位論文의 管理實態

### 1. 國內大學院에서의 學位授與 現況

우리나라 大學院의 歷史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비록 1946年 2月9日에 學士, 碩士, 博士, 名譽碩士에 대한 學位令과 그 規定이 발표<sup>19)</sup> 되었지만 실제로 大學院이 設置되기 시작한 것은 1946年 8月 27日에 美軍政 法令 第102號로 公布된 國立서울大學校 設置令에 의하여 當年 10月 15日에 서울大學校가 개교<sup>20)</sup>함과 동시에 大學院(一般大學院)도 開院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碩士過程만이 설치되었는데 1949年 7月 15日에 文學碩士 20名, 法學碩士 6名, 醫學碩士 57名, 理學碩士 4名 등 94名의 碩士가 처음으로 배출되었다.<sup>21)</sup> 그리고 博士學位過程은 11년이 지난 195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設置된다.<sup>22)</sup> 그러나 서울大學校에 博士學位過程이 設置되기 5年前인 1952年 4月 26日에 博士學位가 授與되었는데, 이 學位授與式에서 文學博士 1名, 醫學博士 1名, 理學博士 3名이 탄생하였다.<sup>23)</sup> 이렇게 하여 1952年度부터 매년 博士學位를 授與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大學院의 博士學位過程을 正規적으로 修了한 후에 소정의 論文審査를 거쳐 授與되는 博士學位는 그보다 3年뒤인 1960년에 이르러서야 授與되었다. 서울大學校에 뒤이어 1949年 9月에는 高麗大學校에 1950년에는 延禧大學校(現在の 延世大學校)에 大學院(一般大學院)이 設立<sup>24)</sup>되고 그 후에도 각 大學(校)에 계속 설치되었다.

1985年 現在 一般大學院數는 77個에 이르고 있으며, 認可定員數에 있어서 는 碩士學位課程에 30,744名, 博士學位過程에 11,072名, 總 41,816名에 이

19) 韓國教育 30年史, (서울: 大韓어머니會 中央聯合會, 1977), p.60.

20) 서울教育史, 下卷, (서울: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1981), p.40.

21) 서울대학교 三十年史, 1946-1976. (서울: 서울大學校三十年史編纂委員會, 1976), p.34.

22) 서울教育史, *op. cit.*, p. 51.

23) 서울대학교 三十年史, *loc. cit.*, :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1945-1968 參照.

24) 韓國大學年鑑, 創刊號, (서울: 애드영, 1982), p. 122.

르고 있으며 해마다 入學定員이 늘어가고 있다.<sup>25)</sup>

韓國大學年報에서 보면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年 동안 大學院數는 약 2倍 증가한데 비하여 入學者數와 卒業者數는 10倍 이상의 數的 增加를 보이고 있고, 특히 80年代부터의 數的 增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特殊大學院은 1959年 1月 31日에 改正한 國立學校設置令 第1條 第3項에 根據하여 同年에 美國의 技術援助와 Minnesota大學校와의 協조로 서울大學校에 行政大學院과 保健大學院을 설치함으로써 시작<sup>26)</sup>되었다.

1985年 現在 特殊大學院의 數는 總126個이며, 認可定員數는 總28,328名에 이르고 있다.<sup>27)</sup>

이들 特殊大學院은 주로 碩士學位課程과 研究課程<sup>28)</sup>을 中心으로 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나, 1975學年度부터 1977學年度까지의 3年間, 그리고 1980學年度부터 1982學年度까지의 3年間은 博士學位課程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1985學年度 現在 一般大學院 및 特殊大學院의 數는 總203個에 이르고 있으며, 一般大學院과 特殊大學院을 합한 大學院의 總 認可定員數는 碩士學位課程에 59,069名, 博士學位過程에 11,072名으로 合計 70,141名에 달하고 있다. 大學院에 관한 각종 學年度別 統計는 <表3>에서 보는바와 같다.<sup>29)</sup>

이와 관련하여 年度別 學位論文數는 <表4>와 같다.<sup>30)</sup>

## 2. 大學圖書館의 學位論文 管理實態

前章의 學位論文의 資料의 特性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學位論文은 大學圖書館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一次的 資料이며 귀중한 研究業績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學位論文이 資料로서의 有用성에 비해 아직까지 全國의 統一整體制가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

25) 문교통계연보, 1971-1985 參照

26) 서울教育史, *loc. cit.*

27) 문교통계연보, 1971-1985 參照

28) 教育法施行令, 第18條 第2項 參照

29) 문교통계연보, 1965-1985 參照

30)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1945-1985 參照.



〈表 3〉 學年度別 大學院 現況

구분 학년도	대학 원수	학 과 수		인 가 정 원 수			재 적 학 생 수			입 학 자 수	졸 업 자 수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계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계		
1964	37	384	166	4,321	749	5,070	3,598	244	3,842		
1965	42	447	209	5,138	910	6,048	4,390	310	4,700		
1966	49	479	251	5,913	1,052	6,965	4,487	393	4,880		
1967	56	500	251	6,823	1,048	7,871	5,018	474	5,492		
1968	60	518	249	7,362	1,000	8,362	5,544	611	6,155	2,766	1,822
1969	64	532	281	8,438	1,169	9,607	6,122	518	6,640	3,226	2,150
1970	66	571	289	9,521	1,303	10,824	6,682	618	7,300	3,744	2,020
1971	74	650	298	11,244	1,448	12,692	7,956	725	8,681	4,655	2,263
1972	81	733	331	13,466	1,986	15,452	9,381	855	10,236	5,383	2,463
1973	80	780	403	14,980	2,370	17,350	11,181	1,046	12,289	6,070	2,940
1974	82	808	422	15,385	2,486	17,871	12,351	1,519	13,870	6,757	3,466
1975	85	895	441	16,866	2,862	19,728	13,394	1,896	15,290	6,890	4,174
1976	87	957	467	17,657	3,208	20,865	14,995	2,225	17,220	8,001	4,721
1977	90	979	489	19,103	3,553	22,656	16,637	2,513	19,150	9,456	4,970
1978	100	1,053	542	24,840	4,590	29,430	22,754	3,025	25,789	12,921	3,857
1979	121	1,108	649	32,980	7,050	40,030	29,901	4,038	33,939	17,067	5,552
1980	151	1,338	738	42,925	9,350	52,275	39,153	5,578	44,731	22,794	7,940
1981	169	1,454	807	53,269	10,057	63,326	46,994	7,214	54,208	25,337	10,168
1982	170	1,541	834	54,237	10,337	64,574	51,805	8,477	60,282	25,227	13,214
1983	186	1,699	917	56,389	10,640	67,029	53,420	9,445	62,865	26,994	15,960
1984	201	1,924	1,015	58,874	11,072	69,946	57,698	10,480	68,178	28,381	18,037
1985	203	1,931	1,020	59,069	11,072	70,141	59,184	10,778	69,962	27,562	18,701

〈表4〉學位授與者數(學位論文數)

학년도	종 별	「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총목록		
		석사학위논문수	박사학위논문수	계
1945				
1964				
1965		10,885	2,178	13,063
1966				
1967				
1968				
1969				
1970		3,650	850	4,500
1971		1,898	436	2,334
1972		2,371	475	2,846
1973		2,628	600	3,228
1974		3,038	984	4,022
1975		3,511	521	4,032
1976		4,432	237	4,669
1977		4,559	251	4,810
1978		3,659	377	4,036
1979		5,294	521	5,815
1980		7,318	643	7,961
1981		8,622	699	9,321
1982		12,089	844	12,933
1983		13,571	1,134	14,705
1984		16,300	1,420	17,720
1985		17,131	1,644	18,775
계	1969-1985	110,071	11,636	121,707
	1945-1985	120,956	13,714	134,670

이에 本考에서는 각 大學圖書館의 管理實態를 收書, 整理, 閱覽에 限定시켜 調査하여 보고자 한다.

### 1) 收書現況

學位論文의 生産量이 늘어남에 따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入手方法도 매우 多樣해지고 있다. 設問調査를 통하여 얻은 結果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受人 및 登錄: 대부분의 圖書館이 學位論文 接受를 收書系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學位論文의 進담부서가 設置되어 있는 圖書館에서는 이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學位論文의 年平均 收書量은 碩·博士學位論문을 합하여 6,900餘件으로 調査<sup>31)</sup> 되었으며 이는 당해 大學院 卒業者(18,037)의 約 38.4%에 해당되는 수량이다.

한편, 趙浩一의 調査<sup>32)</sup>에 의하면 受人別로는 交換의 69.7%, 受贈이 27.6%, 購入이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資料는 大學院이 設置된 大學相互間에 있어서 交換資料가 主從을 이루고 있다.

② 原簿登錄 및 製本: 學位論文의 登錄業務는 ① 登錄區分 ② 記帳 ③ 捺印 ④ 統計 등의 네가지로 나누어 다룰 수가 있다. 一般圖書와 동일한 原簿上에 學位論문을 算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合理的인 것인가 그 登錄與否에 대하여 보면 전체 應答圖書館의 約 50%가 아직도 一般圖書와 同一하게 登錄하고 있고, 별도로 登錄하거나 假登錄하는 圖書館은 40~44%, 登錄을 전혀하지 않거나 接授簿에 간략히 記載<sup>33)</sup>하여 收書處理하는 圖書館도

31) 收書量을 把握하기 위한 調査에서는 件數를 明示하게 하였다. 이는 각 大學마다 入手資料의 量에는 顯격한 차이가 예상되었으므로 基準線의 提示가 難點이었다. 入手量의 記錄을 보면 碩士學位論文은 3,500~21,557件으로 平均 6,500件이었고, 博士學位論文은 60~1,597件으로 平均 400件으로 이 모두 6,900餘件으로 計算된 것이다.

32) 趙浩一, 學位論文 資料의 整理를 위한 調査研究, 啓明研究論叢, 第2集(1984), p.182.

33) 接受簿에 略式으로 記載하는 圖書館에 있어 그 기재 양식을 보면, ① 學位區分 - 碩士·博士, 發行機關, 著者, 論題名으로 하였거나 ② 發行機關, 學位區分別 卷數로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두가지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있었다. 그러나 先行調査에 따르면 서울市内 15個 綜合大學의 9.2%,<sup>34)</sup> 趙浩一<sup>35)</sup>은 大學院 設置大學에 74.5%로 學位論文을 一般圖書와 동일하게 整理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比較해 볼 때 本 設問을 통해 본 結果와는 44%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先行의 調査에서는 登錄하여 一般圖書와 같이 藏書化하느냐의 與否에 比重을 두고 있으나, 이번 調査結果에서는 이를 더 세분하여 藏書化 뿐 아니라 登錄의 樣相까지도 把握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問項에서 一般圖書原簿에 登錄(48.0%)한 것과 별도의 學位論文用 登錄原簿(40.0~44.0%)를 더하면 88.0~92.0%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結果는 비교적 規模가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圖書館에서 小量의 學位論文蒐集 초기부터 시행해 온 業務規程을 과감히 改善하지 못하고 이를 아직까지도 계속 踏襲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製本할 경우 그 方法은 ① 날권제본 ② 전공(주제)별 제본 ③ 학과별 제본등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調査結果는 전체 25個館중에서 44%에 해당되는 11個館에서 製本處理를 하였고 그 가운데 日 권(개별)으로 製本하는 圖書館이 많았다. Kelly Patterson<sup>36)</sup>의 경우 未製本狀態로 學位論文을 接受하여 1年 내내 개별로 製本하고 있으며 어떤 大學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만 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외에도 收書業務에서는 接受方法의 改善를 비롯한 새로운 管理方法을 모색하고 있는 圖書館이 전체의 16%가 됨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收書業務에서는 資料의 交換方法, 登錄有無 및 製本方法등이 주된 內容이었다.

2) 整理現況: 學位論文의 整理는 다른 藏書의 整理와 相通한 方式에 의한다고 보겠으나, 學位論文의 特性에 비추어 보면 整理에 있어서 다른 藏書들과 特異한 점도 나타난다.

① 分類相: 現代 각 圖書館에 通用하고 있는 分類體制를 調査한 結果에서

34) 金萬鎭, *op. cit.*, p.103.

35) 趙浩一, *op. cit.*, p.183.

36) Kelly Patterson, *etal.*, *op. cit.*, p.275.

우선學位論文의 分類與否를 살펴보면 碩·博士學位論文 모두 分類하고 있는 圖書館이 전체의 8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碩士學位論文은 類別로 區分하여 備置하고 博士學位論文만 分類하는 곳이 1個館이었고, 전혀 分類하지 않거나 整理規定이 없어 保留하고 있는 곳이 8%인 2個館이나 되었다.

學位論文의 整理를 위한 分類表의 사용은 68%정도가 一般圖書와 같은 分類表를 사용하고 있고, 24%는學位論文 分類를 위한 分類表를 별도로 制定하여 分類하고 있으며, 趙浩一의 調査結果<sup>37)</sup>는 71.8% (일반도서와 동일분류표 사용)와 9.0% (별도의 간략 분류표를 제정), 19.2% (특정한 분류표 없이 대학별·전공분야별)로 밝히고 있다. 分類에 대한 質問을 George Harris와 Robert Huffman<sup>38)</sup>의 研究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個의 범주로 나타내는데 첫째는 대체로 主題名標目表를 使用(89%), 혹은 L.C 標目表에 어떤 지역표(local Scheme)를 추가한 것과, 둘째는 완전 지역표(locally Scheme :대개 연도, academic department, 저자 등을 조합함)이거나 간단하게 위치를 정하는 장치(출판물번호, 알파벳배열등)인 것 등으로 구분되고 몇몇 圖書館중에는 시카고 大學 자체에서 고안된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으며, DDC를 사용하고<sup>39)</sup> 있는 圖書館도 있다.

分類程度에 있어서는 碩·博士學位論文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碩士學位論文은 細分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그렇게 細分치 않는 곳)도 나타났으나, 博士學位論文은 細分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細分치 않는 곳보다 훨씬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어 後者에 대한 分類程度가 더 세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學科別 또는 專攻別로 區分하고 있는 곳이 2個館, 自己大學 發行論文은 細分을 하고 他大學 發刊論文에 한하여는 大分類를 하는 특이한 곳도 1個館 있었다.

學位論文 整理에 사용되는 著者記號表는 李載喆著者記號表(第2表), 張一

37) 趙浩一, *op. cit.*, p.185.

38) George Harris, Robert Huffman, *op. cit.*, p.5.

39) Kelly Patterson, *op. cit.*, pp.279-280.

世著者記號表 順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學位論文 分類表를 一般圖書와 같은 分類表를 사용하듯이 著者記號表도 一般圖書 整理에 사용하고 있는著者記號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編目 및 索引相 :學位論文에 대한 編目は 거의 대부분의 圖書館이 作成하고 있으며 記述에 따른 의견을 外國의 사례연구에 의해 살펴보면 AACR 2에 따라學位論文編目を 作成(89.13%)<sup>40)</sup>하고 학위정도에 따라 編目作成의 완전성이 결정된다.<sup>41)</sup>

碩·博士學位論文을 모두 編目を 作成하는 경우가 전체의 84%에 이르렀고, 특히 所屬大學 發行의 博士學位論文에만 한하여 作成하는 곳도 있었다. 한편, 分類·編目 등의 整理過程을 거치지 않고 閱覽계 하는 意外의 體制도 있었다.

그리고 現行 整理方法에 대한 각 圖書館의 反應을 묻는 質問에서는 곧 現行대로 整理해야 한다는 側面보다는 簡潔한 方向으로 改善되기를 바라는 要求가 훨씬 강하였는데 趙浩一의 調査<sup>42)</sup>에서도 現행방법이 무난하다가 28.2%이고 새로운 방법이 마련된다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42.3%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圖書館도 23.1%나 되어 65.4%의 圖書館이 整理方法上 問題點을 알 수 있는데 그 改善點으로는學位論文에 대한 分類規則이나 分類表의 制定 및 改善를 우선적으로 들었고 編目法에 대한 改善이나 製本·裝備問題를 지적하고 있으며 한편 趙浩一의 調査結果도, 각 圖書館이 共通適用될 수 있는 간편한 方法이어야 한다고 절반이 넘는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一般圖書와 整理方法 동일, 각 圖書館의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가 각각 12.8%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編目이외의 道具로서 索引集을 發行하여 資料의 檢索效率을 提高시킨 圖書館이 1個校, 冊字型 目錄刊行을 準備중인 圖書館이 2個校로 調査되었다.

이와같이 볼 때學位論文의 整理에 있어서는 이를 一般圖書와 같은 方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資料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다른 方法을 研究해 볼 것인가

40) George Harris, Robert Huffman, *op. cit.*, p.5.

41) Kelly Patterson, *op. cit.*, p.277.

42) 趙浩一, *op. cit.*, p.189.

가의 問題가 대두된다. 또한 學位論文 分類表의 制定이라든가 分類程度에 대한 論議 및 編目方法의 側面에서도 考慮해 볼 必要性이 생기게 된다.

3) 閱覽現況 : 大學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의 閱覽은 所屬大學分의 副本과 入手된 他校分의 所藏本에 한해야 할 것이다. 閱覽은 다른 圖書들과 同一하게 하되 각 大學에 所藏된 각각의 論文은 거의 대부분 唯一本이기 때문에 貸出은 禁해야 할 것이다.

① 別置場所 : 學位論文의 閱覽業務에 있어서는 우선 論文 備置場所의 問題를 調査하였는 바 別置與否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圖書館이 別置하고 있는 形편이었으나 博士學位論文은 一般圖書로 처리하여 碩士分만 別置하고 있는 곳이 2 個館인 8 %를 점유하고 있었다.

閱覽室內에는 전체의 92 %에 해당되는 23 個館이 目錄을 備置함으로써 資料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道具가 갖추어 지지 않은 圖書館도 2 個館이나 되었다.

編目的 種類로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그 實態는 著者, 書名, 分類, 主題名 目錄까지를 갖춘 곳이 博士學位論文은 8 %, 碩士學位論文은 불과 4 %에 머물렀다. 著者, 書名, 分類目錄을 갖춘 곳이 전체의 40 %인 10 個館이었고, 著者, 書名 目錄만을 갖춘 곳은 그 다음으로 9 個館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著者, 分類目錄을 갖춘 곳이 2 個館, 著者, 書名 目錄에다 學科名이나 學科名과 大學名 目錄을 갖춘 體제도 있었다. 한편 目錄을 갖추지 않은 圖書館에서는 國會圖書館 編의 「韓國博士·碩士學位論文 總目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별다른 이용 道具를 갖추지 않은 미흡한 側面도 있었다.

② 閱覽相 : 學位論文의 閱覽方式은 圖書館 奉仕의 效率性 내지는 適合性에 影響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開架式으로 運用하고 있는 圖書館이 14 個館으로 開架式( 11 個館)보다 많은 편이고, 趙浩一의 調査<sup>43)</sup>에 의하면 87.2 %가 館內閱覽으로 利用하고 있다.

學位論文의 閱覽奉仕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는 書架管理를 들 수 있겠는데 碩士學位論文은 學位論文室에 備置하고 있는 圖書館이 36.0 %로 가장 많고

43) *Ibid.*, p.189.

그 다음이 定期刊行物室 (28.0%), 參考資料室 (24.0%)로 나타났으며 그외에도 書庫, 郷土資料室에 備置하고 있다. 趙浩一의 調査에 의하면 收入에서부터 閱覽, 保存에 이르기까지의 全業務 分擔은 定期刊行物室, 參考閱覽室, 學位論文室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閱覽業務에서는 別置場所 및 別置與否와 目錄備置 및 目錄의 種類와 閱覽方式, 그리고 閱覽奉仕의 效率性 方案 등의 問題가 대두된다고 하겠다.

### Ⅲ. 碩·博士學位論文의 管理體裁와 그 基準의 模索

이제 設問調査 過程에서 나타났거나 現場 調査에서 드러난 問題點에 관하여 綜合的으로 分析, 比較함으로써 學位論文의 바람직한 管理 方案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 1. 收書相과 그 基準의 問題

우선 學位論文의 收書에 있어서,

첫째, 學位論文의 入手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學位論文의 提出部數가 20~50部로 制限되어 있어서 交換方法에 의하여는 必要로 하는 모든 學位論文을 圖書館에서 入手하기가 힘들고 寄贈에 의한 蒐集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각 圖書館마다 學位論文의 蒐集을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講究해야 한다. 이는 곧 學位論文을 전체 大學圖書館간에 交換할 수 있도록 提出部數를 한층 늘리게 하는 制度的 方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學位論文 收書의 難點을 해결하는 가장 획기적인 措置가 될 것이다.

둘째, 入手된 資料에 대한 收書節次는 物品管理上 記錄을 하여 自己圖書館의 藏書임을 識別토록 해야 하지만, 이를 一般圖書로 取扱하여 圖書 登錄原簿에 登錄하여 藏書化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別途의 學位論文 原簿에 登載하거나 接受簿에 간략히 記載하는 圖書館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處理하



것이 適合한 方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量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接受 處理하는 것은 제한된 時間과 人力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接受 또는 登錄하는 方法을 改善해야 할 것이다. 그 改善方法은 이를 登錄 原簿에 登載하지 않고 별도의 帳簿에 著者, 書名, 機關名만으로 간략하게 登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學位論文 登錄簿을 별도로 마련하여 簡易登錄하되 필요에 따라 保有 總數 및 大學別 年間交換數의 集計가 可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세째, 製本 問題를 檢討해 보면 調查對象校의 약 절반 가량이 製本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資料의 保存 도중 破損되었거나 本來부터 paper bound (紙製本)인 경우 納권(개별) 製本이 24%였고, 發行機關의 專攻(學科)別로 合綴하는 곳이 16%였으며 發行機關에 關聯없이 主題別로 區分 合綴한 곳이 4%였다. 學位論文이 최근 量의으로 급격히 增加하고 있고 寄贈資料의 비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納권으로 製本하는 것은 엄청난 製本費와 時間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方法이므로 이를 각 大學院 學科別로 區分해서 1年單位로 合本하여 製本하는 것이 그 整理와 利用에 効果적일 것이다. 學位論文을 製本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事項은 利用者가 資料를 利用하는데 불편을 갖지 않도록 製本時期의 적절한 選擇과 신속한 整理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2. 整理相과 그 基準의 問題

大學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을 利用者에게 效果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利用者들을 위한 몇가지 分類體裁가 필요하다. 利用者가 學位論文에 接近하는 方法으로는 ① 직접 論文에 바로 接近하는 方法, ② 司書의 도움을 받아 接近하는 方法, ③ 組織된 目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接近하는 方法 등을 들 수가 있겠다. 學位論文의 數량이 아주 적을 때에는 ①과 ②의 方法도 效果가 크겠으나 學位論文의 量이 國內의 경우만 하더라도 年間 圖書館마다 2,000 내지 20,000 권이나 증가하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③의 方法이 보다 效率的인 方

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分類를 위한 分類表의 問題를 들 수 있겠다.

一般圖書와 同一하게 處理하는 方法과 별도로 制定한 分類表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學位論文은 어떤 學問의 한 領域에서 專門的이고도 細密한 主題에 대한 研究 結果의 產物이므로 主題를 嚴密하게 구분하기에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散在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一般圖書에 適用하는 分類表를 이용 細部的으로 展開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현재 調査된 바의 學位論文 分類形態를 보면 다음 <表 5>와 같다.

<表 5> 學位論文 分類實態

區分 分類實態	A 型	B 型	C 型	D 型	E 型	F 型
분류여부	석·박	석·박	석·박	석·박	박 사	분류없음
분류표의 채택	일반도서와동일시	학위논문 분류표	학위논문 분류표	학위논문 분류표	일반도서와동일시	없 음
분류표의 제정기준	"	학과명채기(전공 M6-고유 M6)	발행기관 학과별 수입순별 기호	DDC 16 판 기준한 분석 합성식	"	없 음
분류정도	세밀분류	상기 규정 에 의함	중분류	중분류	대분류	

\*본 실태표는 설문항목중 분류에 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위의 表에서는 學位論文의 分類에 관련된 事項을 모두 表化한 것이다. 分類與否는 이미 前章에서 밝힌 바 있어서 여기에서 分析할 必要는 없겠으나 E 型和 같이 博士學位論文만을 對象으로 하여 分類하고 碩士學位論文은 分類없이 備置하는 경우와 이에 分類하지 않은 F 型的 경우는 資料의 迅速한 利用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探索이 어려울 뿐 아니라 現代 圖書館의 逆機能

이 되므로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는 學位論文 分類表인데 아래에 그 몇가지의 形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가지는 自己圖書館이 사용하는 一般圖書資料의 分類表에 의하여 細密分類하여 圖書記號의 構成이나 登錄番號의 記載, 그리고 剔出指示의 內容으로 보아 一般圖書와 同等하게 業務處理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가장 傳統的이고 다수의 圖書館에서 채택하고 있는 形式으로 學位論文의 性格에 符合되는 한편 時間 및 人力이 省減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形態로 一般圖書에 적용하는 分類表를 學科나 專攻이 구분 가능하도록 分類하고 圖書記號로는 大學名과 大學院名을 分析 合成해서 配定한 것으로 예를 들면 <表 6>과 같다.

<表 6> 學位論文 請求番號 配定例 1

기 호 구 분	청 구 기 호	서 지 사 항	비 고
별 치 기 호	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K.D.C *
분 류 번 호	370.9	조선조 서당교육연구 (Title)	
도 서 기 호	대 17 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연 도	1986	1986年	

\* 分析 合成한 圖書記號에서 大學院名은 첫자를 따되 一般大學院은 省略한다.

위의 分類方法은 分類記號의 配定이 容易한 利點이 있는 반면 嚴密한 主題를 다루고 있는 學位論文의 特性에 비추어 볼 때 같은 分類番號 안에 너무나 많은 資料가 모이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한가지는 위의 일반적인 分類法과는 달리 大學別, 學科別, 專攻別로 自己圖書館 所定의 分類番號를 주어 記號化하여 區分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例示하면 <表 7, 8>과 같다.

〈表 7〉學位論文 請求番號 配定例 2

대학별 · 전공별 · 학과별기호	23 L 13	충남대학교 · 동양사전공 · 사학과
발행년도 · 수입순 도서기호	81 - 1	1981년학위 청구논문 · 수입순1

〈表 8〉學位論文 請求番號 配定例 3

별치기호	대학원	자료의 별치장소
분류기호	0512	KDCP (보정관)에 의함 *
대학별 · 대학원별 · 전공별	4 K 8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전자자료처리학과
입수순 문헌기호	6	수입순 일련번호

\* KDCP <보정관>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分類表를 적용하여 석·박사학위논문의 분류에 용이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것이므로 自己圖書館所定の學位論文用 分類表라 할 수 있다.

〈表 9〉學位論文 請求番號 配定例 4

별치기호	TM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TD)
학과명 - 전공번호	교육학 - 26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 국민윤리 (26)
대학(교)명	강원대	강원대학교 (세자리수 채택)
연도 - 수입번호	1984 - 1	논문표지에 기입된 연도, 수입순 일련번호
복본표시	= 2	등호로 표시 (아라비아 숫자)

여기에서 <表 8>은 소위 一般分類表를 適用하여 簡略化한 “縮少版”으로 當該 分類表에 따라 손쉽게 分類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記號의 配定이 용이하여 時間 및 人力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嚴密한 主題下의 많은 論文들이 同一한 分類番號를 나타내게 되는 難點이 생긴다. <表 7, 9>와 같이 學科名이나 專攻名을 記號化하여 分類하고 있는 경우는 自己圖書館所定の 記號를 부여함으로써 簡便하게 처리할 수 있고 新設 學科나 專攻의 展開가 쉬운 利點은 있겠으나 大學院이 설치된 99개의 大學(校), 207개의 大

學院 學科 및 數百이 넘는 專攻의 처리에 대한 記號의 複雜性과 學科,專攻의 變更이나 統廢合時的 再調整 問題 등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둘째는 分類表의 어느 程度까지를 細分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곧 一般圖書과 같은 方法에 의할 경우에 適用되는 문제이다. 이 分類程度에 관하여는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完全分類 즉 展開 가능한 範圍까지 細部的으로 分類하는 것이 資料의 性格에 適合하며 또한 原則적인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에는 編目에 관한 事項이다. 우선 利用者의 學位論文 資料檢索은 目錄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接近하는 方法이 가장 效果적인 것으로 主張되어 왔으며 實態 調査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대부분의 圖書館에서 碩·博士學位論文에 대한 目錄을 모두 作成(84%)하고 있는 實情이다. 當該圖書館의 編目方針에 따라 差異는 있겠으나 學位論文도 一般文集, 기타 學術雜誌의 경우와 같이 利用者의 대다수가 主題에 의하여 接近하는 경우가 많으며 學位論文의 긴 書名을 제시하거나 特定한 學位請求者名으로 檢索을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족할만한 主題名 標目表가 없기 때문인지 8.2%의 低調한 作成率<sup>44)</sup>을 보이고 있고, 一般圖書과 같이 대개는 分類順目錄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學位論文의 接近을 복잡하고 긴 書名보다는, 主題接近을 할 수 있도록 分類目錄이나 主題目錄 또는 PRECIS를 利用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學位論文의 目錄 또는 索引에 收錄되는 書誌情報을 상세하게 하면 좋겠으나, 學位論文에 대한 業務量이 너무 過多하고 실제 目錄의 利用研究를 한 결과<sup>45)</sup> 書名, 著者事項, 請求番號, 出版年度, 出版社 등이 가장 많이 活用되는 情報로 나타났으므로, 簡略하게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分類規程(分類表)에 관련된 事項 다음으로는 編目法의 改善을 指摘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먼저 AACR과 KCR를 根據로 한 가장 傳統的인 編目樣式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圖 1>과 같다.

44) *Ibid.*, p.187.

45) 崔達鉉, “大學圖書館의 目錄利用研究,” 圖書館學論集, 第9輯(1982), pp.256-257.

## 〈圖 1〉

TM

507

김 225 흥 김, 동 필.

韓國科學教育의 史的考察, 金東必〔著〕. 서울, 1971.

71p. 도표. 26 cm.

學位論文(碩士) - 서울大學校 大學院.

1. 507.

I. 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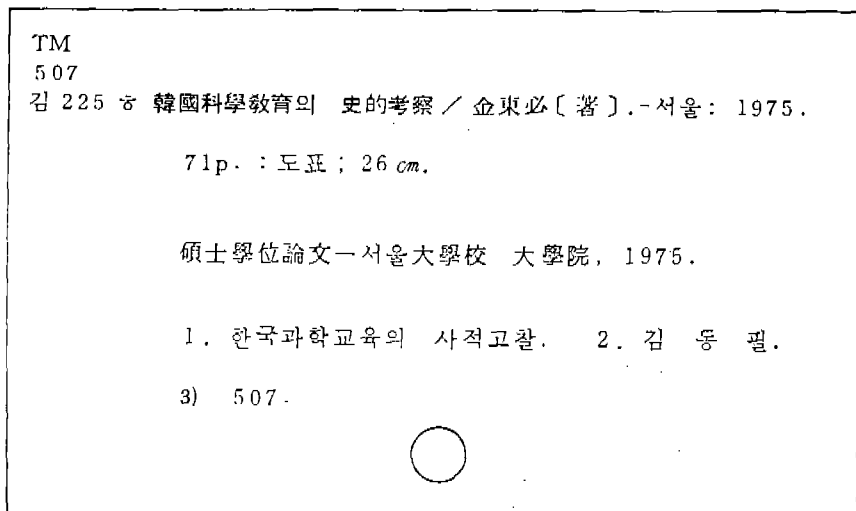
위에 例示한 目錄은 KCR 2와 AACR 1을 基礎로 한 編目 樣式으로 論文 提出者나 學位請求者名을 基本標目으로 하였으며 論文이 提出된 研究機關이나 大學名, 請求學位名을 統一된 形式으로 註記해야 한다<sup>46)</sup>고 規定되어 있다. 한편 改訂된 KCR 3의 學位論文 編目記述에서는 書名主記入法의 書誌記述과 ISBD의 句讀法을 採用하여 編目記入 方式을 規程하였는데 이를 適用한 學位論文 編目樣式은 〈圖 2〉와 같다.

위에 例示한 編目形態와 KCR 2의 形態를 比較해 보면 書名主記入法과 句讀法의 適用 이외에는 別반 차이가 없으나, 註記事項에서 學位名稱에 學位論文이란 말을 덧붙인 어귀 다음에 學位授與大學(校)名과 接受年을 붙임표(-)를 앞세워 附記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위의 兩 編目樣式에서 보면 發行事項가

46) KCR 2의 30條 및 AACR 1의 147c 參照

47) KCR 3의 1, 6, 3, 13 “學位論文에 관한 주기” 參照

< 圖 2 >



운데 發行地<sup>48)</sup>를 억지로 表記한 것이라든가 形態事項의 面張數와 圖書의 크기를 表示(KCR2·KCR3)한 것은 一般圖書의 多種多樣한 形態의 性質에 비추어 볼 때 거의가 一定한 形態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태여 表示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學位論文의 註記에서 學位授與年度를 記述(KCR3)한 것은 위의 記述部와 重複이 되므로 省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諸 觀點에서 본 學位論文의 編目 形態를 例示하면 <圖3>과 같다.

48) 目錄記述事項에 發行地를 附加한 것은 學位授與機關을 發行處로 보고 그 機關이 所在한 위치를 表示한 것으로 보이나 舊誌的으로 無用한 것이다. 다만 公刊된 學位論文의 경우는 例外일 것이다.

## 〈 圖 3 〉

TM

5 0 7

김 225 호 韓國科學教育의 史的考察 / 金東必 [ 著 ]. 1975.

碩士學位論文 — 서울대학교 大學院.

1. 한국과학교육의 사적고찰. 2. 김 동 필.

3) 5 0 7.



위의 編目은 學位論文 整理上의 難點인 人力 및 時間上의 소비를 다소 줄일 수 있고 특히 編目樣式이 簡明하므로 利用者의 資料檢索에 親切感 내지는 容易性을 提供할 것이다.

## 3. 閱覽相과 그 基準의 問題

閱覽業務의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要素로서는 먼저 別置與否에 관한 內容인 바 資料로서의 特殊性을 감안 別도의 場所에 備置함으로서 적절한 管理나 利用面에서의 效率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學位論文을 定期的으로 發刊되는 一般論文類와 類似한 形態로 取扱하여 定期刊行物室에 備置하고 있는 곳(28.0%)이 있는데, 이는 圖書館 建物 사용 側面의 難點이 없는 한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碩士學位論文만을 別置하는 경우(8.0%)도 또한 資料의 構成面으로 보나 利用上의 觀點에서 보나 문제시 되므로 碩·博士學位論文을 함께 別置토록 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며, 學位論文을 個別登錄하여 整理하는 경우에는 面數가 적은 論文이 상당히 많으므로 閉



架式이 바람직하겠으며 製本後 登錄하는 경우에는 開架式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閱覽室內에 備置하고 있는 目錄의 實態에 관한 內容으로 著者名, 書名目錄 정도로 그친 圖書館이 意外로 많아 閱覽奉仕를 위한 檢索道具로서의 機能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學位論文은 보다 專門的이고 複合的인 主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主題를 통한 檢索이 가능하도록 主題名目錄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分類目錄이라도 備置하여 資料檢索 機能을 強化하여야 하겠다.

閱覽方式에 관하여는 각 圖書館의 管理方針에 따라 決定될 일이겠으나 資料 자체가 주로 비치되어 있는 定期刊行物室 또는 參考閱覽室에서 閉架式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특히 近年에 이르러 各級圖書館에 복사 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學位論文은 利用者의 趣向에 適合한 資料의 檢索을 위하고 資料의 활발한 利用을 위하여 開架制를 實施하고 또한 學位論文 資料室에는 충분한 資格 要件을 갖춘 司書를 配置하여 閱覽奉仕의 效率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 結 言

1970年代 이후 高等教育 人口의 增加와 大學院 中心教育으로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學位論文이 量的으로 增加하여 大學圖書館 寄贈資料의 主從을 이루어 왔다.

學位論文은 未刊本으로서 主題가 專門的이고 取扱上 깊게 다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面數가 均等하지 못하며 製本狀態가 不完全하고 制限된 部數로 發行되고 있지만 一時에 發行되어 나오므로 대다수의 圖書館에서 收書, 整理, 閱覽 등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學位論文은 앞으로 無限定 增産될 것으로 보여 利用者에 대한 圖書館 奉仕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 반면 豫算의 減縮과 人力時間의 不足이 加重되어 있어 合理的인 圖書館 運營이 절실히 要求되는 實情이다. 內容面에서나 形態面에 있어서 他 圖書館 資料와는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는 學位論文은 獨立된

類型的 圖書館 資料로 看做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符合되는 整理 및 利用方案을 講究할 것이다. 이에 本 研究는 學位論文의 諸 管理 實態에 關하여 綜合的으로 分析 (評價) 한 結果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學位論文의 收書節次에 있어서 이를 一般圖書와 同一視하여 一般圖書原簿에 登錄하여 藏書化하기 보다는, 別途의 學位論文 登錄原簿에 登載하여 이를 一般圖書와 區別하여야 하며 登錄시에도 그 節次를 簡素化하여야 한다. 또한 製本處理에 있어서는 學位論文 發行機關의 主題 (專攻 또는 學科) 別로 合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學位論文의 分類와 編目作成에 있어서는 一般圖書에 適用하는 分類表를 이용 전개가능한 範圍까지 細部的으로 展開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또한 編目作成에 있어서는 KCR이나 AACR에 根據한 종래의 傳統的인 樣式 보다는 記述事項을 簡略化한 編目を 編成하여 時間 및 人力上의 制約을 輕減시켜야 할 것이다.

3. 學位論文 資料室內에는 資料의 檢索을 위한 道具로써 著者名, 書名目録은 물론 分類目録이나 主題名目録을 備置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目録이 統合目録의 趨勢임을 감안할 때 學位論文을 위한 索引集도 함께 活用될 수 있도록 備置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國內定期刊行物 記事索引(國會圖書館 編)에 學位論文 記事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學位論文은 資料의 性格이나 特性에 비추어 볼 때 獨立資料室에 別置하여야 하며, 資料의 적절한 檢索과 활발한 利用에 副應하기 위하여 開架制 閱覽方式을 採擇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資料室에는 충분한 資格의 司書를 配置하여 閱覽奉仕의 效率을 높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 Management System of Thesis in University Library

Son, Moon Chul

(Abstract)

After 1970s, because of an increasing peoples for higher education and graduate school-oriented education system, quantities of thesis were produced for short time and they began to be an important part of gift materials in university libraries.

As an unpublished documents, thesis is narrow in subject, deep in content, irregular is page, incomplete in binding and produce limited-edition during short time simultaneously at most institutions.

So most libraries are in difficulties for acquisition processing and circulation. Because of an increasing number of thesis will be produce and cutback of budget, shortage of staff, library service for user will be difficult and rational and efficient management is absolutely essential to library.

In form and content, thesis is in distinction with other library materials, they must be handler as an independent item and library will seek an appropriate processing and using method of them.

Analysis and synthesi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acquisition of thesis, it is desirable that they has an independent accession book with a simplified processing procedure and the binding of them is desirable together with

subject field(major or department) by institutions.

2. In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of thesis, it is rational that library use the same classification scheme as other materials and expand in details. Simplified catalog will be reduce the time and/or personnel problem than using the traditional KCR or AACR.

3. As an retrieval tool, author, title, shelf and subject catalog must be prepared in thesis room. Index of thesis will be available for retrieval with the trend of union list and Korean periodicals index(National Assembly Library, Republic of Korea) must include the thesis.

4. Because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sis, library has to equip an independent room and open stack for the appropriate retrieval and frequent use. Qualified librarian must serve for the efficient circulation service.